

8·15 대성회 전세계 100만명 결집 화합일치회복을

조용기 목사, 소강석 목사, 이동원 목사, 김학중 목사, 정성진 목사 등이 설교한다

8월 15일(주일)오후 4시~7시까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8.15대성회에 예정합동의 서기행, 이치우 목사가 불참의사를 밝힌 가운데 대회 조직위원회는 3일 아침 기독교연합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순서지를 발표했다. 이번 대성회에 조용기 목사(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가 '일치와 화해'라는 주제로 설교에 나선다.

또한 '생명과 희망' 시간에는 지구교회와 이동원 목사, 안산 꿈의교회 김학중 목사, 일산 거룩한빛광성교회 정성진 목사, 용인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 등이 설교를 맡았다.

조직위원회는 또 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와 북을주의동맹 대표를 이 방문에 용서와 화해의 시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 교회 7대 실천강령을 발표했다.

이번 2010. 8.15대성회는 서울시청 앞, 평화문 일대를 비롯해 전국

70개 도시 성도들과 전 세계 70개 도시 한인 성도들로 100만 명을 결집시킨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이번 대성회는 오직 '말씀 선포와 기도'에 초점을 맞춘 '기독교 집회'의 성격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직위원회가 항상 강조해 온 "1973년 빌리 그레이엄 목사 방한 집회, 1974년 엑스포로 대회의 열정을 이룰 것이라"는 개최 취지를 생각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서울광장 특설 무대에서 오후 3시30분부터 진행될 본 행사는 개막 전 공연에 해당하는 '열망' 개막식인 '감사·회복·예배인 일치·화해' 메시지 선포를 위한 '생명·희망' 마무리 행사인 '해방·평화' 순서로 진행돼 오후 7시쯤 끝난다.

또한 '생명나눔 실천,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세상의 희망, 한국 교회'를 위하여, '세계의 평화통일, 대한민국을 위하여' 등을 주제로 참석자 전체의 합심 기도가 올려진다.

특히 이날 2부로는 '생명·희망' 순서에서 목회자 4인의 메시지 선포가 이어진다. 이동원(지구촌교회) 목사는 '해방에 대한 감사와 사명', 김학중(꿈의교회)목사는 '회개와 사명', 정성진(거룩한빛광성교회)목사는 '통일과 민족복음화의 소망', 소강석(새에덴교회)목사는 '위기 극복과 미래비전'의 주제 아래 10여분씩 짧고도 강렬하게 말씀을 전한다. 이어 참석자들이 '결단의 기도' 시간을 갖는다.

이어진 행사는 '열망'의 첫 순서로 다문화가족 대표자들이 각국의 전통의상을 입고 입장한 뒤 각국의 문화공연을 차례로 선보인다. 이어 최치우 찬양밴드, 북한 출신 예술공연 전문가 15인의 공연, 연주팀 '예가'와 백석예술대학생 150여명의 타악 연주 '평화와 비전 퍼포먼스' 등이 펼쳐진다.

또한 '감사·회복' 순서에서는 방지일 영동포교회 원로목사와 김



심환 명성교회 목사, 청소년 여성 대표 등이 함께 대형 복을 두드리

는 '복 난타 퍼포먼스'가 마련돼 있다. '일치·화해' 순서 찬양은 청예예술공연 전문가 1만 명이, '생명·희망' 순서 찬양은 장년 연합 성가대 1만 명이 맡는다. 각각 20~30개 교회 성가대원들로 구성된다. 이밖에도 '전사의 소리' 어린이 합창단, 목사·장로 3000명 연합 성가단 등이 출연한다.



한기총 대표회장 이광선 목사(좌) 임태희 대통령실장(우)

대해 별도로 시간을 마련하여 모시고 이야기를 들겠다"며 관심을 표명했다.

이 자리에는 한기총 서기 문원순 목사, 총무 김운태 목사, 사무총장 정영택 장로를 비롯하여 전광훈 목사(사학법폐지 및 사학진

흥법제정추진위원장)와 서경석 목사(재개발문제대책위원장)이 배석했다.

● 一勞永逸 : 2010년 대통령실 화두로서 '지금의 노고를 통해 이후 오랫동안 인력을 누린다'는 뜻

사설

知識人은 많으나, 知性人이 없는 사회

과학은 진실하나 과학을 하는 과학자가 반듯이 진실한 것은 아니다. 과학에는 기만이나 허위가 없지만, 과학을 하는 과학자는 기만에 빠지기 쉽다. '과학의 진리성'과 '과학자의 진실성'은 다르기 때문이다. 신앙이 추구하는 삶, 종교는 진리이며 진실하지만 종교인이나 종교지도자가 진실하기가 어렵다. 2천 년 전에 수업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같은 당시에 존경 받는 종교의 최고지도자들, 기독교인들이었다. 몇 년 전 '술기세포, H 교수사건'은 진위 여부를 떠나 이러한 논리를 입증하는 두려운 사건이다.

「매스컴과 정치」가 영웅 만들기에 앞장서고, 국민은「영웅 신드롬」에 집단취향 되어 들떠 있다가, 뒤늦게 맞고 어리둥절 깨어나 허탈에 빠진 느낌이었다.

머리로 진리를 알고, 입으로 진리를 말하고 떠드는 지식인은 많다. 아는 것을 삶으로 옮겨 진실하게 사는 지성인은 드물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과학의 진실」 「종교의 진실」이 「권력의 정치성」과 돈의 함정에 빠지면 부패하고 타락하여 「기만과 허위」의 밧줄에 목이 매달리기 마련이다.

동의보감을 쓴 허준의 일대기를 보면 감명스럽다. 천민집안의 아들로 태어나 어의까지 된 허준은 젊어서 「병의 유의태 의원」 밑에서 약초 캐는 일꾼으로 지냈다.

그리고 먼 훗날 유의태 아들은 말을 타고 며칠 만에 상경하는데 허준은 걸어서 몇 날 며칠을 주막집에 자면서 올라간다. 그때마다 주위의

아픈 사람을 만나고 돈이 없어 치료도 못 받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그들을 치료한다. 결국 환자들에게 발목이 잡히고 만다. 유의태 아들은 합력해서 금의환환을 했는데, 우리는 항상 「무엇이 되느냐? 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고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4천 년 전, 소돔, 고모라는 인구 10여만의 고대 도시국가였다고 한다. 하지만 만 명중에 단 한명의 의인이 없어 그 성은 지진과 화산폭발로 불타서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의 비결을 묻는 율법사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며, 빼앗은 강도와 방관자인 제사장이나, 레위인, 그를 일으켜 세우고 밭에 태워 동행하는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강도 만난자의 이웃인가를 묻는다. 그리고 너도 가서, 그와 같이 살라 go and do likewise 말 씀하신다. 아는 대로 사는 지행합일知行合一의 지성인은 드물다.

이런 사람을 조선시대는 선비요, 중국에서는 군자요, 성서에서는 의인이라 부른다. 저 넓은 바다가 수십 억 년이 흘러도 썩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3%의 소금 때문이다. 97%의 맹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은 3%의 소금이 많은 97%의 맹물을 지키고 살려낸다는 말이다. 그리고 사람이 건강하게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의 하나는 인체의 혈액 속에는 3%의 소금이 있기 때문이다. 3%의 소금은 인간의 생명 유지의 필수조건이다.

임태희 대통령실장, 박인주 사회통합수석 내방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박인주 사회통합수석이 신임 인사차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를 방문해 대표회장 이광선 목사(좌)와 정부 정책과 교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광선 대표회장은 8월 2일 오후 4시, 신임 인사차 한기총을 방문한 임태희 대통령실장에게 "비즈니스맨 데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건넸고, 임 대통령실장은 "그동안 대통령실 조직을 정비하는 데 오를 첫번 조화를 할 정도로 바쁘다"며 "이제야 시간을 내서 찾아뵙게 되었다"고 답하고, ' 勞永逸' 이라고 쓰인 이명박 대통령의 난을 이 대표회장에게 전달했다.

이 대표회장은 "오는 8월 15일에 서울광장에서 '한국교회 8.15 대성

회'를 갖고 한국교회의 지난 역사를 되돌아 보면서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국민화합을 위해 기도하고자 한다"고 소개하고, "실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고, 임 대통령실장은 "대단히 큰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힘드시겠다"며 "NCK까지 함께 하는 만큼 의미가 있다"고 관심을 나타냈다.

이 대표회장은 또 리비아의 구 선교사 문제와 관련하여 "이번 일은 선교사의 잘못 때문인 것으로 오도되고 있으나 실상은 희생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가 분명하게 밝히고 대책을 세워서 교회와 선교사들이 오해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 한기총 배석자들은 원주민의

85%가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현행 신도시 재개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역시 교회도 종교 부지를 차지하는 초대형교회만 남고 그곳에 있던 세밀교회 등 중소형 교회도 모두 떠나야 하는 문제와, 규제일변도의 사학법 폐지운동 등의 교계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말미에 이 대표회장은 지극히 적은 사람들의 반대에 흔들리지 말고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진행하고 그 결과로 평가받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임 대통령실장은 "철저한 심정을 잘 알겠다"며 "익숙한 주제들도 있으므로 잘 살펴 보겠다"고 말하고 "국민의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동석한 박인주 사회통합수석도 "그런 현안에

월드미션협의회 목회자·사모 초청 능력세미나 안내



대표총재
김유정 목사



이사장
이선 목사



연수원장
주광석 목사



총재 및 이사
임현평 목사



총재
호세길 목사



총재
이재창 목사



총재
장길수 목사



여성대표회장
이옥자 목사



부총재
조용활 목사



부총재
양승명 목사



부총재
이용철 목사



부총재
최요한 목사



부총재
황재순 목사



부총재
주화순 목사



상임회장
이정숙 원장



공동회장
이승우 목사



공동회장
장홍섭 목사



공동회장
김선국 목사



강사단장
염영원 목사



사무총장
윤재봉 목사

일시 및 장소

- ◆ 일시 : 2010년 8월 24일 오후 2시 ~ 5시 30분
- ◆ 장소 : 핵심장대교회 (이선 목사 시무)
서울 송파구 장지동 850-3 02)430-9107

세미나 내용

- ◇ 1교시 : 설교 스킵치 세미나 (강사: 이승우 목사)
- ◇ 2교시 : 귀신추방능력 세미나 (강사: 인병렬 목사)
- 회비 : 1만원 ○ 대상 : 모든 목회자 및 사모

8.15 광복 기념 예배

- ◆ 일시 : 2010년 8월 15일 오후 4시 30분
- ◆ 장소 : 임마누엘교회 (장재순 목사)
서울시 강남구 일동 643-4
☎ 02)459-2978, 011-348-1333

9월 뱃볼 기도회

- ◆ 일시 : 2010년 9월 6일 낮 12시
- ◆ 장소 : 충주초대교회 (김재순 목사)
충북 충주시 용강동 1609-2
☎ 043) 856-1691, 010-7611-1691

월드미션협의회 주소: 서울 송파구 거여동 251-42 전화: (02)401-3095

강사단장: 염영원 목사 011-895-0384
 사무총장: 윤재봉 목사 010-9167-0117
 긴 사: 사한호 강도사 010-8858-4064



문선재 목사(전 강원대 총장)

탁류속에서 맑은역할 못하는 개신교 정신 차려야 한다

문선재 목사(전 강원대 총장, 전 예일신학대학원 총장)는 강원대 교수로 재직하다 군사정권 아래서 해직을 당했다. 그 때 장신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해 목사가 됐다. 1992년 목사 신분으로 국립대 총장에 취임해 화제가 되었던 인물이다. 강원대 은퇴 이후에는 예일신학대학원 총장을 지냈다.

그가 지난 2일 아침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연합회관에서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갖고 있는 세계성서화운동본부(총재 김인중 목사, 전윤태 장로) 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아모스를 본론으로 한국 교회에 따듯한 충고를 던졌다.

문 목사는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사회는 성적인 타락과 상인들이 저울을 속이는 부정한 시대였다. 또한 지도자들이 뇌물을 받고 굶은 판결을 내리는 부패한 시대였다.

그 시대에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정의를 물같이, 공법이 하수처럼 흐르게 하라고 했다.”며 “요즘 한국 교회는 북받치는 설교는 많이 하는데 교회가 정의를 외치는 것은 거의 없다.”며 아모스 시대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타락을 지적했다.

문 목사는 “종교를 지탱하는 두 기둥이 있는데 제사장과 예언자”라고 말하고 “제사장은 제제를 옹호하고, 예언자는 제제를 비판한다. 다른 나라와 다르게 우리나라는 가톨릭이 예언자적이고, 개신교는 제사장적이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는 가톨릭이 7.4퍼센트 성장했

데, 개신교는 1.4퍼센트 쇠퇴했다.”고 말했다.

문 목사는 “아모스 시대의 종교는 굉장히 의식을 지켰다. 기독인들이 매일매일 제사 형식을 지켰다. 그들은 형식과 의식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하 나님은 만족해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아모스는 이것을 저항하고 삶속에서 정의를 실천하면서 의식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당시 주류 종교에 대해 굉장한 저항을 했다.”고 강조했다.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문 목사는 교회 부목사 면접에 탈락했던 이로부터 들은 서글픈 교회 현실을 소개하기도 했다. “내가 아는 목사가 교회에 부목사 면접을 했는데, 돈을 요구하더라는 것이다. 돈을 받고 교수를 채용하는 비리사 학처럼 이제는 목사도 돈을 주 고 교회에 들어가는 시대가 됐다.”고 개탄한 문 목사는 “개신교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한다. 개신교가 극도로 갔을 때 유턴 할 수 있는 종교였다. 탁류 속에서 맑은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 개신교가 그 역할을 못하고

“부목사 채용 면접에서 돈 요구해”

하라”는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을 거듭 강조 한 그는 오리 전 백부 선생이 6.25 전쟁 중에 피난도 가지 않고 반역했다는 리차드 니버의 〈정의와 사랑〉의 한 부분인 “정의는 사랑의 선행조건이다.”는 내용을 인용하면서 “정의가 먼저 세워서 후에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사회질서를 세운 다음에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 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목사는 “부교단제도 개신교는 정권 친화적인 길을 걸어왔다. 오히려 가톨릭은 정의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국민들이 좋게 본 것”이라고 분석하고 “우리가 아모스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상 제도 속에서 정의에 대해 외치고 본이 되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영기자

수원현돌산수양관 2010하계성회 성황

수원현돌산수양관(원장 윤석전 목사)은 7월 26일~29일까지 1차집회가 끝나고, 8월16일~19일까지 제 2차 집회가 열린다. 2010 하계 성회, 말씀, 능력,기도... 부흥운동의 산실로, 한 번 참석으로 '10년의 믿음을 앞당긴다' 말씀을 통한 정확한 진단으로 영성, 기도 회복, 침체 위기에 놓인 개인과 교회에 일어나라!



원장 윤석전 목사(연세중앙교회 담임)

연세중앙교회는 '10년의 믿음을 앞당긴다'는 슬로건으로 24년을 한결같이 진행해온 현돌산수양관 하계성회를 올해에도 어김없이 개최하여 연일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연세중앙교회 선교부 주치로 진행한 '현돌산수양관 하계성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참석자 수가 계속 늘고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는 성회 참석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이 새로워지고, 불가능한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는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20여 년간 꾸준히 진행해온 현돌산수양관 성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영성, 인성, 도덕성 가치회복 프로그램으로 교회부흥의 차원을 넘어 사회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부흥 운동의 산실이다. 감사로 나선 윤석전 목사는 25년 전 연회동 지하실 개척교회를 시작으로 현재 연세중앙교회를 세계적 규모로 부흥시켰으며, 윤석전 목사의 열정적이고 열려 있는 메시지는 침체한 개개인의 영성은 물론 침체 위기에 놓인 한국교회에 새로운 영적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은혜받기 위한 최적의 조건

현돌산수양관은 수려한 조경과 쾌적한 환경 속에 6000여 명을 동시에 수용하는 대규모 시설을 완비하고 있으며 수양관 수준으로는 국내외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 성회는 이미 교파를 초월하여 개인, 가족 단위는 물론 교회 단위 단체 참석자들이 매년 늘고 있어 교회 부흥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 외국에서도 많은 목회자와 선교사가 이 성회에 관심을 두고 참석하고 있으며 매년 외국인들 참석 숫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비행 청소년에서 모범생으로

■초교과 중·고등부하계성회는

매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모여드는 인원으로 매회 조기등록을 하지 않으면 참석이 어렵다. 올해도 두 차례로 나누어 실시하는 가운데 1차는 7월 26일~29일까지 막을 내렸으며, 8월 16일~19일까지 제2차 집회가 열린다. 초교과 중·고등부하계성회는 불순종과 반항, 흥연, 음주, 폭력, 게임·인터넷 중독, 성적 타락, 가출, 자살 등 브레이크 없이 방종하여 아무도 해볼 수 없는 이 시대 청소년들이 변화를 체험하는 성회로도 유명하다. 3박 4일간 열리는 성회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부모의 사랑과 수고를 감사로 받는 자들로 변하게 한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은혜받고 변화한 학생들이 진교 상위권 모범생이 되고, 비행 청소년이 신학교에 진학해 불우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에 몸 바칠 것을 다짐하는 등 자신들의 삶을 복되고 생산적인 삶으로 만들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가정과 교회에 부흥케 하고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전 세계를 변화케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을 부여해

■초교과 장년부하계성회는 24년 동안 매년 여름마다 은혜의 열기 속에 진행해온 성회다. 지난 8월 2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세계 각처에서 몰려든 수많은 참가자가 영육 간에 결박한 각종 문제에서 해방을 경험하고 각종 불치병 치유를 경험하는 등 성령의 역사가 파도치는 성회다. 세상 물질과 환경을 이기고 영적인 복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한다.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말씀의 능력

을 부여하기도 한다.

성회 참석자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힘을 얻으며, 방언은사 등 각종 은사를 받아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꾼으로 성령 성장한다. 올해도 여름 휴가에 가족 단위로 참석해 충격적인 영적 체험으로 믿음을 앞당긴 결과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향해

■초교과 장년·대학부연합하계성회는 8월 9일부터 12일까지 열렸다. 갈수록 좁아지는 취업의 문 앞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은 청년들이 좌절하고 있다. 그 공허함을 달래려고 소비적 대중문화, 사이버 문화 환상에 중독되고, 향락과 음란 퇴폐 문화의 유혹에 빠져드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청년들을 겨냥한 장년 대상 세미나는 가치 있는 뚜렷한 삶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향해 올바른 인격을 가지고 인생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전진하게 한다. 하나님이 제공하는 희망의 에너지만이 그들을 타락한 세상 문화의 늪에서, 부모와 갈등에서, 이성 문제에서, 진로 문제에서 자유롭게 한다. 젊음의 열기가 거룩하게 타쳐 나오는 생동감 넘치는 초교과 전국장년·대학연합성회를 통해 이 나라, 이 민족을 부흥케 할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올 것을 확신했다.

직분자를 변화시키는 세미나

■초교과 직분자(제직)세미나는 하나님과 목회자,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에게 직분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게 해준다.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진실하게 충성하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직분자로, 하나님께서 세운 주의 종의 목회 사역을 섬기는 직분자로 거듭나서 교회 중직으로 변하는 세미나다. 은혜 받고 변화 직분자들 때문에



수원현돌산수양관 수련회를 마치고 일출로

헌재 ‘무면허 침뜸행위 불법’ 의료법 합헌

구당 김남수 선생 시술행위 등 의료법상 불법행위로 남아



김남수 선생

전히 불법 행위로 남게 됐다.

헌재(이강국 소장)은 29일 부산 지방법원이 침뜸 행위가 위헌인지 여부를 가려달라며 제정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5명이 위헌을, 4명은 합헌 의견을 내 결과적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많긴 했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 인원 6명을 채우지 못해 합헌으로 결정난 것이다.

합헌 결정한 재판관들은 “법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특정 의료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는 게 바람직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입법적인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증되지 않은 의료 행위로 국민의 건



침술로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강이 위험 받을 경우 국가가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면허 의료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 1996년 이후 이날로 여섯 번째다.

앞서 구당 김남수 선생이 세운 ‘뜸사랑’의 회원 김씨는 무면허로 침 등을 놓다 기소되자 부산지법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법원은 모든 무면허 의료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은 지나치다며 헌재에 위헌 제청을 했다.



쑥으로 뜬다.

아동 성범죄 4년 만에 69% 증가...범행 당시 음주율 37%

10만명당 10건에서 16.9건으로 늘어나

연이은 아동 성범죄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지난 2005년 이후 아동 성범죄가 계속 증가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아동 성범죄 비율은 아동 인구 10만명당 지난 2005년 10.0건에서 2008년 16.9건으로 4년 만에 69%가 증가하면서 큰 폭의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에 반해 미국은 10만명당 57.7건에서 59.4건으로 소폭 증가(2.9%)하는 데 그쳤고, 일본은 29.2%, 독일은 9.6% 감소했다. 같은 기간 발생 건수는 2005년 785건에서 해마다 961건(2006년), 1081건(2007년), 1194건(2008년)으로 증가했다.

청소년 성범죄는 더 심각하다.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발생 비율은 독일·영국·미국·한국(2008년)으로 증가했다.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발생 비율은 전체 인구 10만명당 발생 비율은 2008년 기준 8.6%로, 같은 기간 미국(6.2%)과 영국(5.1%), 독일

(1.0%)과 일본(2.7%)을 압도한다. 청소년 인구 10만명당 청소년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도 2008년 79.4건으로 영국(140.7건)과 미국(88.0건) 다음으로 많다. 지난 4년간 아동·청소년 성폭력 발생 건수는 한국과 미국만 증가 추세에 있다.

이같은 수치는 여성가족부가 최근 발표한 ‘국내의 아동 성범죄 특성 분석 및 아동 보호체계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5개국을 비교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아동 인구대비 성폭력범죄 발생 비율은 독일·영국·미국·한국(2008년)으로 증가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암수율이 매우 높았다. 성폭력 범죄의 미국 7.9%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7.1%에 달해 음주문화 개선 노력에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는 공식 범죄 통계보다 최대 16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12.2배, 미국은 2.7배에 불과하다. 조사 관계자는 “한국의 피해조사는 미국·영국보다 과의(過罰)의 성폭력 유형을 포함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 발생 비율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만 같은 기간 큰 범죄라는 뜻으로,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범죄)가 많고, 우리나라의 경우 168건 중 1건 정도만 입건되는 점을 감안하면 처벌의 엄격성 강화만으로는 범죄 억제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며 “신고를 한상을 유도하고 성폭력 범죄 수사력 향상을 통해 유죄 입증률을 높여 유죄판결을 받은 가해자를 엄벌할 시스템이 형성돼야 가해자 엄벌정책 역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암수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성폭력 범죄의 암수율을 추정하기 위해 실제로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수사기관에서 발표하

아대용 기자

자지스티임즈 | www.JTNTV.kr JTNT방송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7837(발행: 신음력 8월 15일)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7837(발행: 신음력 8월 15일) 대표고문: 피종진 목사 사장: 소진우 목사 발행인: 정기남 목사

전국 16개 지사 / 해외 9개국 지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40-31
▶E-mail : jtpress@hanmail.net
▶전화 : 070-8230-0032, 0034, 02) 팩스 02741-0031
▶대표 : 011-468-6574, 02741-0031(팩스 겸용)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농업,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부터~
▶1년 구독료 : 40,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670-110405-00108 / 농협 455030-56-005509



구로경찰서장 이봉행 총경 취임축하예배 드려

서울시 구로구 교회와 경찰협의회(교경협의회, 경목회)는 지난 달 12일(월) 오후 7시30분 오류동 성결교회(조종환 목사)에서 (7월 2일) 서울 구로경찰서 제24대 서장으로 취임한 이봉행 총경을 축하하는 감사예배를 드렸다.

찬양위원장 장창운 목사의 찬양인도와 진행위원장 서기 조종환 목사 사회로 예배가 시작되어 (부대회장)윤기순 목사가 기도, (대회서기)전 철 목사가 창 39:1~3절 말씀을 봉독하고 (오류동성결교회)찬양대의 찬양과 색소폰연주가 있었으며, (지도위원)이준복 목사는 "요셉같은 사람"이란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사무총장 김수정 목사 사회로 2부가 진행되어 교경협의회 회장 박재욱 목사, 교구협의회 회장 정영근 목사, 오류동성결교회 조종환 목사 등이 각각 신임 이봉행 서장에게 취임 축하 패와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 회장 박재욱 목사(교경협의회)가 환영인사를, 구로경찰서장 이봉행 총경이 취임인사를 했다. 또한 리용덕 목사(한국교회신문사)가 이 서장에게 서울청교분회로를 증정하였으며, 고문 전유성 목사, 박현모 목사, 지도위원 이영범 목사, (수석부회장) 김길진 목사가 결례사와 축사를 했다.

아울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구로지역과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한국교회 및 복음으로 통일



구로구 교경협의회 대회장 박재욱 목사



서울 구로구구로경찰서 서장 이봉행 총경

회장 박재욱 목사는 교경협의회와 경찰선교에 관심이 많고 남다른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및 북한동포를 위하여, 구로경찰서와 관계 주민들 삶의 향상과 신임 서장을 위하여(부대회장)김문경 목사, (선교위원장)윤병수 목사, (지도위원)김성현 목사, (봉사위원장)이종승 목사 등이 특별기도에 나섰다.

이어 특별찬양에 구로경찰서 신우회 폴리얼중창단이, 총무 김수정 목사가 광고와 내빈소개를 하고, 고문 정영근 목사 축도로 마쳤다.

이날 대회장 박재욱 목사는 인터뷰에서 구로경찰서 교구협의회가 더욱 화합하고 타 구에 뒤떨어지지 않는 활동은 물론 교경협의회가 지난 20여 년간 경찰선교를 위하여 일해 온 업적들이 크

다면서 신임 이봉행 총경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관내 문서선교 활성화에 노력할 다할 것과 경찰선교에 한 단계 업 되는 구상을 갖고 있다면서 신임 이봉행 서장이 주 안에서 참된 신앙으로 기도하는 독실한 분이어서 서울 구로경찰선교와 관내복음화에 있어 균형발전을 이루어 갈 것으로 믿는다며 기대를 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로경찰서는 믿음 있는 지휘관을 보내주셔서 소망이 크다면서, 경찰선교 활동에 터전이 마련되고 신앙심이 부합한 총경을 자랑하고 기뻐했다. 또한 박 회장은 좋은 장점을 살려나가며 경찰선교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무총장 김수정 목사는 교경협의회와 경찰선교를 위하여 박재욱 대표회장의 뜻을 잘 반영해 나가면서 협의회와 경찰선교에 있어서 가교역할을 다해 갈 것이며 교경협의회가 지역 사회 복음화를 위하여 일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구로성결교회 담임 조종환 목사는 전유성 목사의 말을 예로 들어 구로경찰서는 20년 전에 경찰서를 건축하고 맨 처음 예배를 드린 역사 깊은 경찰서라고 자랑하면서 앞으로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해서도 많은 활동이 기대가 된다고 했다.

게다가 구로경찰서를 완공하고 예배를 먼저 드렸다는 것은 터전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기에 이 터전위에 활동역 있는 민생안정과 범죄 없는 지역사회를 이루어 가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회장 박재욱 목사는 교경협의회와 경찰선교에 있어서 관심이 많고 남다른 비전을 제시하면서 본 협의회가 선교 활동에 잘하는 것도 있지만, 반면에 부족한 점도 있다면서 경찰선교의 핵심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인데, 그것은 말씀을 전하고 물질적으로도 경찰선교를 위하여 봉사를 해야 하고 경찰은 일반 경찰도 있지만 전 의경이 있는데, 이 젊은이들은 장차 이 나라의 기둥들이며, 교회로서는 소망적인 청년들이라고 말하고 경찰복음화와 전의경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고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자들이 전의경 복무를 마치 고 사회로 진출할 때는 지역사회의 선교사로 파송시키는데, 이를 위한 양성교육의 중요성을 말했다. 여기에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과 신앙프로그램으로 자들을 교육하고 구제하고, 소망을 심어 주는 역할이 교경협의회가 할 일 이요, 또한 죄소자들에게도 관심을 가질 것을 밝혔다.

구로경찰서 교경협의회는 2010년 6,000여 민원의 예산을 정하고 경찰서와 교도소 불우이웃을 돌아보며 복음화를 위한 문서선교에 힘쓰고 있다.



취임감사예배를 드린 후 기념촬영을 했다.

왕성교회 제33차 하계수양회 전교인 성령충만

양평 십자수기도원 2010 게시록을 통한 영성훈련으로 성도들 재충받아



김자연 목사(왕성교회 담임)

왕성교회 김자연 목사는 말씀충만 성령충만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킨 제33차 여름산상수양회를 경기도 양평 십자수기도원에서 8월1일~3일, 4일~6일 두 차례 가졌으며 성령리에 마쳤다.

김자연 목사가 강사로 나서 "패를 따라 마시라(겔4:11)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자 산상수양회에 참석 한 7천여 명의 성도들은 뜨겁게 은혜를 체험하고 회개하는 역사 속에 사명감과 충성심을 다지는 재충전의 장이 되었다.

김 목사는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시작해서 읽고 묵상하며 성도들로 쉽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설명하면서 게시록을 통한 하나님의 미래의 계시를 전하자 은

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는 듯 관심을 모았다.

원장 김 목사는 모든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살았으면서 아무리 좋은 일이라 생각되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금하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충성했고, 나중에는 자신의 몸까지 희생했다고 말하고 또한 예수님은 과거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구속의 은총을 위해 자신의 피를 쏟아 주셨으며,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희생하셨으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전했다.

또한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다.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대신 제사를 지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므로 지금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 안에 계시며 교회를 보호하신다.

오른손에 일 곱 별을 잡으시고 촛대를 잡고 계신다는 말은 촛대 사이로 지키시는 천사들을 말한다.



지금도 천사들이 교회를 지키시고 계신다. 천사가 보이지 않지만 오늘날도 천사들이 구속받은 성도 한 사람 한사람을 지켜 주신다. 교회가 부흥하면 그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부흥한다.

그리고 주님은 미래에는 구름타고 재림하실 것과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로 재림 하신다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지옥을 열수 있는 열쇠를 가진 분이 장차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전하고 이러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이번 산상수양회를 통해 성령충만과 은혜충만으로 황홀한 체험을 갖기를 기원하고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붙잡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굳게 서라고 강조하면서 전 성도들이 십자수기도원 은혜의동산에서 선교의 사명 재충전을 위한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달라고 했다.

정부의 잘못을 선교 탓으로 돌리나?

일부 언론, 사실 확인도 없이 기독교 비난 여론 유도

리비아에서 유학생 생활을 하고 있는 구 모 씨가 현지에서 체포되었다는 보도가 23일 나왔다. 이에 대하여 한국 언론들은 정확한 확인도 없이 그가 '불법' 선교활동을 하다 체포되었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또한 정부에서 전해주는 말대로, '우리 측이 다각도로 영사적 접근을 하고 있으나 리비아 측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또 '한국 내 리비아 관계기관 직원들도 휴가로 본국으로 돌아갔다'는 말로 허위성 보도를 한 것이다. 그 보도의 저의에는 한국인 선교사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외교 문제가 촉발된 것으로 보도한 것이다. 이러한 보도에 따라 인터넷과 포털에서는 기독교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지난 달 27일자 "미디어"에서는 현지에서의 보도를 토대로 다른 보도를 하고 있다. 즉, 이 사건은 정부의 외교관 신분을 가진

사람이 리비아 정부의 예민한 부분에 대한 과도한 정보수집 활동을 한 것이 발단이라고 적고 있다.

이것은 양국의 외교관계를 과묵으로 묻고 갈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 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외교 당국이 민간인의 선교 활동으로 인한 (외교)갈등이라고 은폐·축소하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한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외교부는 책임을 재외국민에게 전가시키며, 곤란을 모면하려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구 모 씨가 리비아 정부에 억류된 것이 이미 한 달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리비아 정부의 공식적인 언급이 없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지 않은가.

기독교계 선교연하기관의 정보에 의하면 리비아가 이슬람 국가이나 이슬람 외에도 팔각교회, 성공회, 그리스 정교회 등이 종교 활

동을 하고 있으며,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한다.

이 사건을 지난 25일 최초 보도한 MBC는 현지 언론에서 상세히 보도되었다는, 스페이 활동으로 인한 리비아 당국의 불협화음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러면서 '불법선교'라는 말을 사용하여, 마치 기독교인의 선교활동으로 국익의 손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뉘앙스로 보도하였다.

이는 MBC가 현지 언론의 보도 내용 조작 확인하지 않는 초보적인 실수를 저지른 것인지, 2007년처럼 기독교에 대한 반 국민정서를 유도하려 한 것인지 는 알 수 없지만,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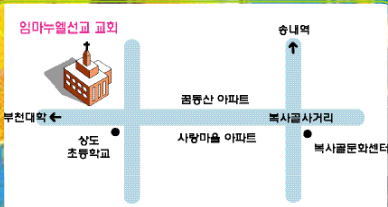
이유야 아찌되었든 이번에 리비아 정부에 의하여 억류된 구 모 씨는 정부의 첩보활동의 희생양이며, MBC 등의 오보에 의한 언론파해자이다.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 '불법선교' 운운한 MBC의 부적절한 보도태도를 비판하며, MBC는 한국교회에 사과하고 정정 보도를 해야 할 것이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임마누엘 선교교회



담임 현병우 목사
(본지 JTNTV 방송 부사장)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20-1
H.P 011-9710-9190

주일예배: 오전 11시 / 오후 찬양 2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금요일예배: 오후 9시
월·화 영성사역: 오전 11시 / 오후 7시



임마누엘 영성원

☎ 011-9710-919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20-1

피종진 목사 8월 국내·외 성회 일정



피종진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www.nscs.or.kr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86
교 회: (02)3411-9191 FAX: (02)3411-9111
목사관: 010-5255-7777 FAX: (02)401-7770
E-mail: Godbless3333@gmail.com

- 2(월) 오전 서울 성민중앙교회(강영준 목사) ☎(02)456-1091
- 2(월)~4(수) 국제영성원(박명순 목사) ☎(031)968-9191
- 3(화) 오전 명성교회 차익신명성수양관(원장 김성환 목사) ☎(033)762-9998
- 4(수) 오후 Nysco 한국성회, 제자교회 파주수양관(원장 정삼기 목사) ☎(031)959-3333
- 5(목) 저녁 평화의동산(원장 피종진 목사) 여름축복대성회 ☎(041)852-2211
- 6(금)~7(토) 부산 김립산기도원(원장 이국란 목사) ☎(055)375-0831
- 9(월)~10(화) 대구 중산제일교회(강은숙 목사) ☎(053)812-4848
- 11(수) 오전 전국 목회자시모세미나, 정소: 서울 예정교회(실동욱 목사) ☎(02)435-4062 주최: 한국지역복음화협의회, 목회자시모신문
- 12(목)~14(토) 인양 김립산금식기도원(담임 조성근 목사) ☎(031)472-7213
- 15(주일) 오후 서울 대림번영교회(정부용 목사) ☎(02)845-5095
- 16(월) 오후 전국목회자시모세미나, 정소: 서울 예정교회(실동욱 목사) ☎(02)435-4062
- 16(월)~19(목) 진주기도원(원장 김진홍 목사) ☎ 011-228-0631
- 20(금) 오전 오산리최자실기금식기도원(원장 김원철 목사) ☎(031)947-0091
- 20(금)~21(토) 주최: 한국기독교부흥선교단태충언회(총재 고충진 목사)
- 20(금)~21(토) 군산 호림산기도원(원장 김시라 목사) ☎(063)451-3528
- 22(주일) 오후 부천 경서교회(홍재철 목사) ☎(032)684-8241
- 24(화)~26(목) 필리핀(Philippines) 세브 예정(합동) 동서울교회 목회자 해외세미나
- 27(금) 오전 한양신학대학교 실천목회연구원(원장 피종진 목사) ☎(02)2067-4511
- 27(금) 저녁 서울 성서교회(편재영 목사) (02)2605-7070
- 30(월)~31(화) 서울 강남생수기도원(원장 윤순덕 목사) ☎(02)2683-4202

대한예수교 장로회 빛과소금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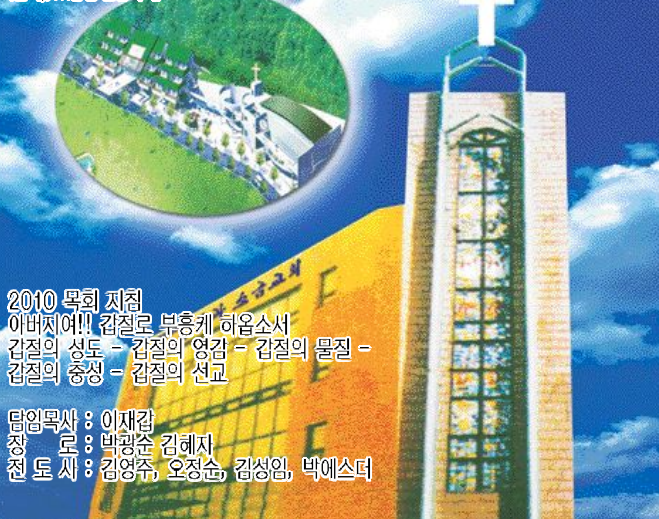


담임 이재갑 목사
(본지 JTNTV 방송 운영이사)

교회 표어: 오직 예수, 재림신앙, 땅끝전도

21세기 비전

1. 하늘에 성금을 많이 쌓은 교회
2.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교회
3.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교회
4. 땅 끝까지 선교하는 교회



2010 목회 지침
아버지여!! 감정으로 부흥케 하옵소서
감정의 성도 - 감정의 영감 - 감정의 물질 - 감정의 충성 - 감정의 선교

담임목사: 이재갑
장로: 박명순 김혜지
전도사: 김영주 오정순 김성임 박에스터

(우)139-818 서울시 노원구 상계2동 389-50 ☎ 02938-3521, 010-3228-3521
(빛과소금교회 수양관)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리 116-5

청풍명월 한우 전문기공.판매장 문열어

청주 상당구 율량동, 이달 13일 개장식

충북도에서 농식품부 공모 클러스터사업으로 추진한 청풍명월 한우기공·판매장이 이달 13일 청주 상당구 율량동에 문을 연다. 청풍명월 한우 기공·판매장은 총 공사비 26억원을 들여 금년 1월에 착공하였으며 6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7월말에 준공한 후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다.

시설은 총 3층 규모로 건축 연면적 2,128㎡이며 1층은 기공·판매장, 2층은 자율식당, 3층은 사무실 및 회의실로 이루어져 있다. 청주권에서는 분령동 한우 플라자에 이은 두 번째 개장으로 동 매장은 청주 북부 및 오창지역을 판매 대상으로 하며, 시설운영은 도내 6개 축협(청주, 충주, 음성, 진천, 괴산·증평, 옥천?영동)이 공동 출자한 (주)청풍명월클러스터에서 맡게 된다.

그동안 도내에서 생산된 청풍명월한우 중 고급육은 주로 롯데백화점의 전국 26개 직영매장, 청주축협 한우플라자 및 농협에서 안심한우 등으로 판매 되었지만, 농가에서 요구하는 전량을 판매해주지는 못해 광역브랜드서의 역할 및 브랜드 활성화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앞으로 동 매장이 활성화 될 경우 유통시장이 보다 다변화 되고 최근 각 지자체별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무상 학교급식과 연계할수



있는 시의 적절한 개장이라고 판단된다.

판매장에서는 청풍명월한우 이외에도 무항생제 돼지 및 닭고기와 우리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도 함께 전시·판매할 계획이며, 현재, 서울 강서시장에 공사중인 수도권 친환경축산물판매장과 이번에 개장되는 한우 전문 기공·판매장을 연계하여 운영할 경우 학교, 병원 등 단체급식 확대가 가능해 집에 따라 시너지 효과는 물론 유통비용 절감으로 인해 농가 소득이 증가하고 축산농가에서는 판로적

정 없이 사육에만 전념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에서는 앞으로 친환경축산물 시장의 급속한 변화에 발맞추고 청주지역 외에도 수도권의 유통기반을 다양화 하여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충하고, 소규모 번식농가 육성 및 친환경 HACCP 인증지원, 충북산 보증종모우 육성 등 생산기반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하여 청풍명월 한우를 소비자들과 함께 하는 경쟁력 있는 일류 브랜드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 제도 꼼꼼하게 챙겨보세요

충북도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만 18세 미만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서 자동차를 취득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는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도세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하였지만,

지난 7월 5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혜택이 더욱 커졌다. 7인 ~ 10인이하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의 취득시 취득세와 등록세가 모두 면제이며, 일반승용차의 경우 취득세는 40만 원까지, 등록세는 100만원까지 감면받고 초과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귀농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가 시행되어 농어촌이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귀농할 경우, 귀농인이 취



득하는 농지 또는 농지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등록세가 50% 감면되며,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전자담배를 추가하여 니코틴 용액단위의 세율을 별도로 미련하였다.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지방세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재무과(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과 전자장치를 이용해 흡연하는 것으로 교환식 카트리지에 들어 있는 용액을 수증기상태로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든 전자기기이다.

[시론]

역사교육,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이종전 목사

어느 나라든 국민을 교육함에 있어서 국어와 역사(국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초등학교는 물론 의무교육 교과과정에서 두 과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당연히 높다. 또한 공무원 채용은 물론 승진과 관련해서 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대학입시는 물론 국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조차 중요한 과목으로 채택하지 않음으로 역사에 대한 무관심과 역사의식의 결여로 인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대학입시에서도 선택과목으로 편성함으로써 학생들이 점수를 쉽게 받을 수 있는 다른 과목을 선택하고, 상대적으로 암기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국사는 기피과목이 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국사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까.

인종이나 출신지역과 관계없이 성장과정에서 어떤 역사를 배우냐에 따라서 그 사람 안에 형성되는 가치관과 정체성이 달라진다. 비록 같은 나라에서 태어나 자랐다고 할지라도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현실은 기성세대가 국사를 배울 때와 현재 자라는 세대가 공부하는 국사에 대한 해석의 차이만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성세대는 '동학'을 '난'(亂)으로 배웠다. 그러나 지금은 '혁명'(革命)으로 배운다. 하나의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관점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동학'의 의미도 달라진 것이다. 따라서 '난'으로 배운 세대와 '혁명'으로 배운

세대는 생각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하물며 역사를 아예 배우지 않거나, 무시하는 상황에서 자아형성을 했다면 이도저도 아닌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국민들이 국가관이나 국가를 형성함에 있어서 공동으로 책임진 의무교육 교과과정에서 두 과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당연히 높다. 또한 공무원 채용은 물론 승진과 관련해서 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대학입시는 물론 국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조차 중요한 과목으로 채택하지 않음으로 역사에 대한 무관심과 역사의식의 결여로 인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국가관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분단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거나 회피하게 된다. 국가는 국민 개개인이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형성된다.

때문에 국민은 각자가 분담해야 할 책임을 동반한다.

그러나 국가관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분단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거나 회피하게 된다. 국가는 국민 개개인이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형성된다. 때문에 국민은 각자가 분담해야 할 책임을 동반한다.

그러나 국가관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분단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거나 회피하게 된다. 국가는 국민 개개인이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형성된다. 때문에 국민은 각자가 분담해야 할 책임을 동반한다.

그러나 국가관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분단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거나 회피하게 된다. 국가는 국민 개개인이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형성된다. 때문에 국민은 각자가 분담해야 할 책임을 동반한다.

그러나 국가관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분단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거나 회피하게 된다. 국가는 국민 개개인이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형성된다. 때문에 국민은 각자가 분담해야 할 책임을 동반한다.

그러나 국가관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분단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거나 회피하게 된다. 국가는 국민 개개인이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형성된다. 때문에 국민은 각자가 분담해야 할 책임을 동반한다.

을 하고, 국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또한 필요하다.

국가 공동체를 확립하기 위해서 역사적 확신과 자긍심을 가지게 하는 것은 역사교육에 의해서다.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역사의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면 긍지를 가질 수 있고, 긍지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스스로 노력한다. 국민의식 가운데 국가관과 함께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를 가지고 있고, 국방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다면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모래성과 같은 국가일 수밖에 없다.

우리의 현실은 국사교육에 허점과 국사가 정책적인 면에서조차 소외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없다. 그렇다면 국가적 미래로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불과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현실로 나타날 것이고, 어찌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급박하게 위기를 느끼게 하는 것이 현실이건만 정작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 당국이나, 정치인들은 무관심한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더 늦기 전에 서둘러서 역사교육에 대한 관심과 연구, 그리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다른 나라의 일로 생각하듯이 무관심한 상태로 지난다면 심각한 미래가 있을 뿐이다. 어느 날 밤에 불이 떨어져서야 호들갑을 떠나면 이미 늦은 것이다. 한 사람의 인격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역사교육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다.

정치권이나 교육 당국은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많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주안교회

교회시명선언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선포하여 주신 주님의 교회를 선언하며 다음과 같은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모성근 담임목사

- "반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 "민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갑니다.
- "올바른 예배"
- "올바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삶이 회복되어 주님복을 누립니다.
-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며 행복하게 해줍니다.

주일예배 시간 장소

요일	예배	시간	장소
주일	보통예배	1회 오전 7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저녁예배	2회 오전 11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주일	수요예배	오후 7시	3,4층 대 예배실
	금요예배	오후 7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주일	금요예배	저녁 9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새벽예배	오전 5시	3,4층 대 예배실
주일	청년부예배	오후 5시	5층 영신강을
	대학부예배	오후 5시	5층 두란노홀
주일	유치부	1회 오전 9시 30분	2층 세로방
		2회 오전 11시 30분	2층 세로방
주일	유초등부	1회 오전 8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2회 오전 11시 30분	3층 아동연다
		3회 오후 2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주일	중등부	오전 9시	2층 영신강을
	고등부	오전 11시	2층 영신강을
주일	영어예배	오후 1시 30분	5층 두란노홀

전남 목포시 북항동 1671-15(북항주택단지)
대표전화 : (061)272-4908, (061)278-0692 팩스번호 : (061)278-0693

대한예수교장로회 공 덕 교 회

표어 : 말씀의 은혜 안에 행복한 교회



담임 서명범 목사

담 임 : 서명범 목사(본지 운영이사)
시무장로 : 송두현 조길수 박성현
교육전도사 : 이광수

예배안내 : 주일예배 오전 11시 오후 2시
삼일 밤 오후 8시 금요기도회 저녁 9시

주소 : 충남 공주시 봉황동 295번지
전화 : 041)853-9966 855-0691
홈피 코헬렛 http://lov153.cafe24.com

대한예수교장로회

주천성교회

예배모습

예배안내

구분

시간

구분

시간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새벽 5:00

주일 오후 예배

오후 1:30

유초등부예배

오전 9:00

수요 저녁 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후 3:30

금요 찬가 기도

저녁 9:00

청년회도임

토 저녁 8:00

451-806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 245-4

☎ 031)656-5830

H·P 010-8585-9137

대한예수교장로회

조치원장로교회

담임목사

박복수

부목사

김정영

전도사

정현익

원로장로

류영근 김천기

은혜장로

나세영

이래온회장로

이두길, 정성협

장로

유익석, 김충용, 김성경, 이윤근, 전용규, 김진용, 정건모

지휘

임재양, 최효숙, 강정원, 강선희, 유정근

목회

노: 강정원, 인사과: 윤해원, 전보람, 김현경, 이종훈

신앙목표

남녀다 성경읽고 항상 읽고 기도하며 주일성수함시다.

실업목표

실업조 생활로 회복받고 전도에 힘씀시다.

지역봉사

행복노년대학(수요일) / 무료급식(수·금요일)
이·미생 무료봉사 / 장학금 지급
사랑의 연탄나눔기 / 조치원 하물 도시락 운영

주한기도

논현 455-041-55-000317 / 예금주 : 조치원장로교회

예배	시간	교회학교	시간
대예배	1회 수요일 오전 9:00	유치부	수요일 오전 11:00
	2회 수요일 오전 11:30	유초등부	수요일 오전 9:00
주일오후	수요일 오후 2:00	학생회	수요일 오전 9:00
수요일예배	수요일 오후 7:30	청년·대학부	토요일 오후 6:30
새벽기도회	매 일요일 오전 5:00		
성가찬양회	금요일 오후 10:30		

TEL : 041)865-1301 FAX : 041) 864-8255

교역자실 : 041)865-1302 충남 연기군 조치원을 평리 6-1

신종화 목사는 전인치유센터를 건립 치유목회가 꿈



신종화 목사
(햇빛중앙교회)

지난 20년 동안 무료침술을 통해, 병명도 나타나지 않고 치료가 불가능한 많은 환자들이 신 목사를 만나 치유를 받고 새 생명을 얻어 믿음의 확신과 새 삶을 찾고 있다.

의료선교를 통해 20년간 많은 환자들을 인술로서 무료로 치료해 온 신종화 목사(55)는 8년 전 서울시 강북구 인수동에 대한예수교장로회 햇빛중앙교회를 개척하여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고 생명을 살리는 치유사역을 하고 있다.

신 목사는 1983년 1월 부인 김향순(52)사모를 중매로 만나 그 해 10월 1일에 결혼하여 아들 딸 남매를 두고 있다.

경북 영주가 고향인 신 목사는 시편 23편을 평생 신앙고백으로 삼고 좋아하는 찬송은 214장 '변함없는 주의 사랑'이며, 시험받고 고난 받을 때 새벽마다 눈물 뿌리며 부르던 찬송은 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을 부를 때 하나님은 위로해 주셨고 붙들어 주셨다고 한다. 그는 지금까지 시편 23편을 통해서 살며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한다.

공직생활과 한약방에서 침술사역을 하던 중 소명을 받았는데...

제가 강원도에서 공직생활을 할 때 청년시설 뜨거운 체험을 하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뜨거운 영적 체험을 통해 주의 길을 가리라는 결심이 선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 신앙이 소강상태에 빠져 있다가 서울에 상경하여 그동안 가졌던 모든 재산이 탕진되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는 이 길이 아니면 갈 곳이 없다면서 저를 몰아가시는 과정을 몸소 체험하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항복하겠

습니다.

제가 1995년도에 소명을 받았습니 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신학교에 들어가 2002년도에 홍은동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곳 인수동에서 개척을 해 8년이 되었습니다.

영혼구원을 위하여 사역을 결심하게 된 동기는

그동안 한방치유사역을 해 오던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으며, 2000년도에 인술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치유사역을 통해 그동안 고침 받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침술을 하게 된 동기는 20년 전이며, 지금까지 이어진 일입니다. 이 침술을 해 오면서 하나님께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 침술을 통해서 영혼구원을 위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침술과 복음 전하는 목회는 매치가 잘 된다고 봅니다. 그때부터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를 많이 찾아 다녔습니다.

제가 이 침술사역을 해 오면서 2000년 초에 햇빛선교회를 조직했고, 타 교단 목회자와 함께 1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충남 서산, 광주를 비롯, 중국에 들어가서 침술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후 하던 공부를 다 마치고 2002년도에 개척교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전문적인 침술과 수지침 등으로 사역을 해 오면서 경기대학 침구학과를 졸업하고, 중국에서 전문적인 침술을 배우고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침구에 관한 다수의 자격증을 획득하게 되었으며, 또한 카이로프라틱 1급,2급 자격증도 수상했습니다. 사실 생체수단이 아닌 오직 영혼구원과 봉사, 헌신을 위해서 사역을 한다면 소중하고 고귀한 도구가 아니겠나 하고 생각해 봅니다.

침술을 통해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보람있는 일이 있다면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1년 후 즈음, 천보산 모 기도원에서 두부를 판매하는 집사 한 분이 잘 알고 지내는 목사 사모를 통해서 저를 찾아 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날 찾아온 집사보다 목사 사모는 1년 전에 교회 개척할 당시에 찾아온 분입니다. 당시 사모의 병은 척추디스크를 앓고 있었는데 남편 목사

가 사모를 업고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해 보았지만 부인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 다.

그래서 목사는 사모에게 내가 잘 아는 동기 목사가 있는데 치료를 잘하는데 한번 가보자 해서 들것에 들려서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고 일어나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치료한을 받은 사모가 집사를 소개하고 기도원에서 두부를 파는 집사는 우측 고관절이 당뇨병이 있기 때문에 과사가 되었고 바로 서서 걸을 수 없는 상태였는데, 병원에서 받은 침술을 권했지만 문제는 당뇨가 있기 때문에 수술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하지만 집사는 아들의 부축을 받아 차를 타고 저를 찾아와 단 한 번의 침술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 걸어서 돌아간 일이 있습니



▲환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치료하는 신종화 목사

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치료함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사역중에 가장 보람을 느끼는 일입니다.

많은 침술요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환자와 치료자와의 마음이 합해지면 그 어떤 무거운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나면 모든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듯이 여기서 힘을 얻고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조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 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는 교통 중에 무거운 발걸음으로 저를 찾아온 환자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사

람의 마음으로 충분한 대화를 나누는 다음 환자를 위로하고 환자에게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으며, 환자의 병명에 따라 인술을 베풀고 있습니다.

치유사역에 있어서 특별히 이루고자한 비전이 있다면

사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셨고, 침술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보람을 느끼는 일이 많았지만, 목회를 하는 동안 남모르는 눈물도 있고, 어려웠던 일로 인해 강단에 열드려 기도할 수 밖에 없는 기도의 제독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 없는가? 해서 저의 비전과 계획, 소망은 전인치유센터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센터, 좋은 시설에서 중보

없는 분들, 정말 내 병은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사형선고를 받은 절망적인 분들, 또는 특별한 병명이 안 나타나는 분들, 마음으로 영적으로 불편한 분들이 오셔야 믿음 안에서 빨리 치료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육신적으로만 아프다든지, 영적으로만 아프다든지, 이런 부류의 환자보다는 정말 무엇인가 갑갑해서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자신의 병을 도저히 고칠 수 없다는 절망적인 분들이 저를 찾아온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가장 어려운 병을 기도와 침술을 통해 고쳐서 나갔고, 그동안 치료함을 받고 가신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분들이 하나같이 여기서 치유 받은 그때를 굉장히 사모하고, 또한 치유 받고 난 후에 그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평안함을 많이 누리고 있음을 볼 때 저는 감동 깊게 생각을 합니다. 서민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없는 의료 체계 때문에 침술이 천시 받고, 의사들만이 할 수 있는 기구가 되다보니 서민들이 접근할 수 없는 엄청난 안타까운 위치에 처해 있음을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혼자서 될 수 있는 힘은 아니고, 저는 단지 보조자요 기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 이를 도울 수 있는가, 그것만을 위하여 기도할 뿐입니다. 앞으로 전인치유센터가 건립이 된다면 정상적으로 치유하는 것은 의사가 하고, 저는 중보기도만 할 수 있는 비전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바로 저의 비전이요 소망입니다.

신종화 목사는 한 주 동안 침술을 통한 인술로 정말 분주하지만

하다. 월요일은 전주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화요일은 본 교회에서 인술을 베풀며, 수요일은 정릉에 있는 수정교회에서, 목요일은 부흥교회에서 많은 환자들을 위하여 예배와 기도로서 치료사역을 하고 있다. 아울러 금요일 토요일은 본 교회에서 철야예배와 치료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또한 주일은 주일 낮 예배와 오후 예배는 1시30분에 나갔고 있으며, 주일 오후에도 급하게 찾아온 환자들을 맞춤과 기도로서 침술사역에 힘쓰고 있다. 신 목사는 한 주간 평균 30명에서 100여 명의 환자를 돌아보며 인술로서 치료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장애우를 위한 무한사랑”

사랑과행복나눔재단(이사장 조용기 목사)은 충주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나눔의 집'에 물품 지원, 노력봉사 등 그리스도의 사랑 전해 조용기 목사는 4천

여 만원 들여 '나눔의 집' 장애우들을 위해 수납가구, 세탁기, 기저귀 등 전달, 정서프로그램·시설청소·간식배식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이외 충주시로부터 추천 받은 97가정에 주택개보수를, 107가정에 생활지원금을 200가정에 쌀을 지원, 충주시에 총 8천만원 지원으로 사랑과 행복 나누었다.

사랑과행복나눔재단(이사장 조용기 목사)은 지난 7월 27일(화) 충북 충주시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나눔의 집'을 방문해 100여명의 장애우들에게 사랑을 전했다. 조 목사는 충주에 거주하는 이웃들에게 사랑과 행복을 나누고자 중증장애인 시설인 '나눔의 집'을 방문했다.

이사장 조용기 목사는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은퇴한 후, 2008년 '사랑과행복나눔재단'을 창립하고 지금까지 전국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7,000여 가정을 도왔다.

'나눔의 집' 21개의 장애우방에 있는 낡고 비좁아 쓰기 어려운 수납장을 방에 알맞은 크기인 불박이장으로 만들어 방공간과 수납공간을 고려해 지원하며, 세탁기(10Kg) 10대, 120명이 3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기저귀를 지원했으며, 하계기간 하루에 3~4번씩 빨래를 해야 함으로 인해 시설의 세탁기 수명은 2년을 채 넘기지 못하며, 하루에

도 3개 정도씩 사용해야 하는 기저귀의 수량과 금액도 만만치 않음을 고려해 맞춤 지원을 결정한 것이다.

당일 4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시설의 정서 프로그램 지원, 시설청소, 간식 배식 및 보조 등의 노력봉사를 진행했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인 '나눔의 집'은 1950년 전신인 '춘광에육원'으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 10세 이하부터 40세 이상까지 120여명의 남녀 장애우와 60여명의 직원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 1994년도에 신축하여 이전한 이후, 현재까지 17년을 지내오면서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워 수납공간 및 어떤 시설도 손을 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사랑과행복나눔재단은 지난해부터 서울, 광주, 전주, 태백, 영덕, 과산, 울주, 동두천 등 전국의 취약지역을 방문 긴급생계지원, 주택개보수, 건강검진, 이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긴급생활지원, 긴급의료지원, 심장병수술지원, 주택개보수 지원, 주택임차보증금 지원, 소규모시설 개보수 및 후원금 지원과 중앙가정위탁센터,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사)사랑의 달팽이 등의 협력기관과의 활동도 활발히 펼쳐가고 있다. 앞으로도 전국의 지역과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사장 조용기 목사가 지난 겨울 희귀병 아이들 소원인 제주도 여행을 보내기 전 격려하는 모습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담임 장승현 목사
(본지, JTNTV 방송 논설위원)

“가족같이 가정같이 평안하고
행복한 교회로.....”

충남 당진군 송악면 봉곡리 55-6
전화 041)356-0644, 팩스 041)356-0646
E-mail : sunghyun732@hanmail.net
H.P 011)9027-9712

대한예수교 장로회 세계명성교회

WORLD MYUNG SUNG PRESBYTERIAN CHURCH

표어 :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성교회 신앙의 지표 :
1.영혼구원 1.전도폭발 1.성전건축 1.세계선교 1.구제봉사



담임 최남복 목사
Pastor Rev. Choi Nam B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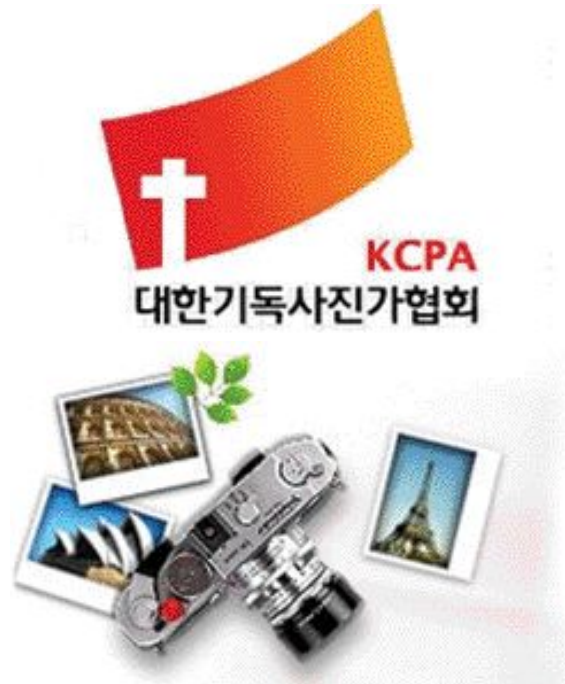
- 교육전도사 : 이재훈
- 반주(피아노):사전아 / 반주(올건):장사희

예/배/일/간/만/내			
주일예배	오전 11시	화요 기도	화요일 오전 10시
주일참예배	오후 3시	주일학교	오전 9시/오후 2시
수요예배	수요일 오후 7시	학원회	토요일 오후 2시
새벽예배	매일 오전 5시	주일 오전 11시	토요일 오후 4시
금요 기도	금요일 오후 9시	청년회	주일 오전 11시

주소:131-103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3동 435-3
제2성전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정리207-1
홈페이지 : http://yeajeon.onmam.com
☎ 교회 : 02)2248-0955 031)575-0691 FAX 02)2248-0955
사택 : 02)436-4579 H.P 010-5346-0955

대한기독교사진가협회

Christan Photo



목회자를 비롯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기독교사진가 협회입니다.
(당신도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작품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대한기독교사진가협회 / 대한기독교영상선교회
회장 이성중 목사(전주 세영진교회)
H.P 017-656-6633
www.christianphoto.co.kr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성교회

(부설 : 광성노인대학)



담임 장창수 목사

장 로
이유영 윤호중 조두현

안수집사
김형준 차경식 공종현
윤진명 이찬영

(우)447-140) 경기도 오산시 궏동 661-1
☎ 031)373-1151, 377-9372 팩스 031)372-2583

피영민 목사 여름신상부흥성회 개최 성황리에 마쳐

“여호와와 영광이 머무르게 하라”



2010년에도 어김없이 3천여 명의 성도들로 앙수리 수양관을 가득매운 가운데 성황리에 여름신상성회가 이루어졌다.

강남중앙침례교회(담임목사 피영민)는 지난 7월26일~28일까지 앙수리 수양관에서 전국 3천여 명의 성도들로 성전을 가득매운 가운데 ‘여호와와 영광이 머무르게 하라’라는 말씀의 주제로 여름신상부흥 국가안녕성회를 개최했다.

이번 여름신상 부흥국가안녕성회는 지난 30여 년간 한국을 성령으로 이끌어온 유재필 목사(순복음 노원교회), 윤환기 목사(여름음향신학교 총장), 이광선 목사(한기총 연합회장), 조성근 목사(갈렐산금식기도원장), 피영민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 등으로 이어지면서 국내외 어

려운 시대에 즈음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오로지 한가지 하늘을 향해 기도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앙수리 수양관은 기도가 많이 쌓인 깊은 영성예배의 처소로서의 최적지이며, 자연 속의 휴식과 팀웍 훈련에 최고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게다가 삼신의 피로를 씻어줄 영혼의 쉼터를 새롭게 단장되어 있고, 많은 성도들이 교



▲앙수리수양관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통이 편리해(중앙선전철 앙수역 개통)서 쉽게 찾아 올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수양관 주변으로 볼거리가 다양하고 은혜의 체험장으로서 만족하며,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성도들과 가족단위로 수양관을 찾아 관광을 겸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 가장 좋은 수양관으로 높은 평이 나 있다.

평강제일교회 2010 하계특별 대성회 및 출판 감사예배

저서를 통해 자신의 신학 사상 담아내 눈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속에 담긴 영원한 언약의 약속”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이루는 백성이 되자”는 주제아래 평강제일교회 원로 박윤식 목사는 2010 하계특별 대성회를 열고 구속사리리즈 제5권 출판감사예배를 교계 많은 지도자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8월4일 경기도 여주 평강제일연수원 모리아 성전에서 개최되어 대성회를 이루었다.

이날 행사는 1부 예배와 2부 출판 기념식으로 진행 됐다. 예배 사회는 이정호목사가 맡았으며 설교는 임승안(나사렛 종합대학교총장)총장이 “우리 하나님 이어 들으소서”란 제하의 설교를 했다.

2부 개회사 사회는 류다윗 목사의 사회로 내빈 소개로 진행되었으며 부산칼빈대 학장 이진섭 박사를 비롯 민경배목사(연세대학교명예교수)의 서경과 유준관목사(예성 증경총회장/현 성결교 이사장) 박지원 의원(민주당 원내대표),원희동(한나라당 사무총장)등이 축사를 맡았으며, 정원식(전 국무총리)장로, 주재용(전 한신대총장)박사의 격려가 있었다.



▲평강교회 여주 출판감사

서경에 나선 민경배 목사는 “책은 한 사람의 사상과 생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말하고 “이 책의 출판을 통하여 박 목사의 신학이 드러나게 되어 그동안 한국교회 성장을 위해 수고한 결과를 보게 되어 감사하다”고 격려했다.

이어 인사에 나선 박윤식 목사는 “이

렇게 정치권과 교계의 많은 목회자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이번에 발간된 책을 통해 부족하지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데 노력했다”면서 그간의 노고를 밝혔다.

2010 장애인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공감 비전캠프

비전캠프는 장애인과 청소년들이 말씀과, 간증, 찬양축제의 시간을 함께 보내며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며, 청소년들에게는 장애에 대한 편견을 허물고 더불어 섬기는 자세를 가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인제로 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번 장애인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공감 비전캠프는 충남 서산엘림하우스에서 8월 9일(월)오후 3시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11일(수)까지 진행된다.



파키스탄 80년 만의 대홍수에 기독교 구호 손길

현지 처치월드서비스(CWS), 월드비전 등 신속 대처 중

80년 만의 최악의 홍수로 피해를 입은 파키스탄을 위한 국제사회 지원 노력에 기독교 구호단체들도 힘을 모으고 있다. 현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 따르면 지난 2일 파키스탄 북서부 지역에 쏟아진 몬순성 폭우로 인한 사망자 수는 현재까지 최소 1천여 명에서 최대 3천여 명까지 이르며, 피해 주민 수는 250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피해가 심한 지역의 경우는 마을 전체가 물에 휩쓸려 내려간 곳도 있으며, 총 3만여 명의 주민들이 주변 도로와 다리 등의 파괴로 인해 고립된 채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고 외신들은 현지 상

황을 전했다.

물이 줄어들면서 파키스탄 정부는 군 병력 3만 명을 배치, 구조작업에 나서고 있으나 홍수로 파괴된 건물 잔해와 진흙 등으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재민 일부에서 고열, 설사, 피부병 등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어 콜레라 등 수인성 전염병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처럼 극심한 수준의 피해상이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의 지원의 손길이 파키스탄에 이어지고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파키스탄 홍수로 인한 인명 피해에 깊은

애도를 표시하고, 최대 1천만 달러의 유엔 긴급구호기금을 약속했다. 이외에 미국, 캐나다, 중국 등 국가들과 유럽연합도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국제사회 노력에 더불어 기독교 구호단체들 역시 최악의 물난리를 겪고 있는 파키스탄인들에게 절실한 도움을 제공하고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파키스탄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던 구호단체들 가운데 처치월드서비스(CWS)는 수재민들에게 비상식량과 임시 대피소를 1차적으로 제공했으며, 부상자들 외에 신체 이상 증세를 호소하는 이들을 위한 이동 진료소 확보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남웅 목사 세계평화상수상, “헌신을 다짐”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다”는 수상자 이남웅 목사



미국법인 세계평화상 시상위원회가 이남웅 목사(헤린교회)에게 세계평화상을 시상했다.

세계평화상시상위원회(이하 WPPAC)는 지난달 13일(화)

오전 11시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가진 시상식에서 본상을 국제개발협력 총재이며 부천시 소재 헤린교회 이남웅 목사에게 시상했다.

WPPAC는 1989년 11월 22일 창설하고 미국 워싱턴 D.C. 정부에 법인등록을 필하고 창설 이래 과거 21년간을 우량단체로서 인류의 이름으로 세계지도자들을 격려, 칭찬과 인정을 해 주는 시상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이 조직은 세계의 7대 종교지도자들로 구성되었으며 세계사회에서 평화를 도출, 유지 및 증진시키는 활동을 해왔다. WPPAC 수상자들은 미국 전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 등 많은 지도자들이 수상한 바 있다.

이날 이남웅 목사는 160개의 사회교육 시설(주로 교회)을 설립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세계의 수백만명에게 전함으로서 영원한 평화를 심어오면서 불행하고 고생하는 심령들에게 인도적인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산 표본을 세웠다.

내부적으로는 소외되고 고통 받는 수십만의 사회적 약자들에게 실질적인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효의 가치를 실천함으로 사회 공동체 및 자국의 화합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으며, 외부적으로는 사회교육형태를 통해 세계시민들을

계도하여 항구적인 세계평화의 씨앗을 파종함으로 세계평화상 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이와 같은 이 목사의 항구적일하게 화목과 평화를 실천하는 특수한 봉사기록은 WPPAC 심사위원을 감동시켰으며, 넘쳐나는 평화도출의 힘은 상징적인 헌신으로 세계평화와 화평을 조성하는데 큰 동인이 되었다.

WPPAC 심사위원들은 이남웅 박사의 세계평화와 인도적인 헌신의 정신은 틀림없이 세계인들이 화목으로 결속되는 핵심에너지가 될 것을 확인하고 있다.

이날 김윤기 목사 사회로 예배가 진행되어 박준구 장로 기도, 이치우 목사 성경봉독, 예장합동 서정배 목사는“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세상을 향하여”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경총회장 김동권 목사 축도로 마쳤다.

세계 평화상을 수상한 이남웅 목사(헤린교회)는 수상 소감에서“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다”면서 부족한 사 람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과분한 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

드린다는 말씀과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후원과 기도가 컸다며 이 영광을 함께 나누었다고 했다.

또한 이 목사는 1970년도에 강원도 평창에서 목회를 할 때 아내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었는데 그 후 7-8년이 지나 결혼상대가 되어서 결혼을 했다. 하지만 개척교회를 하면서 고생도 많이 했고, 어려운 가운데도 참고 견디며 오늘이 있기까지 많이 도와주며 내조에 힘써 준 아내와 가족들에게 이 영광을 나누고 싶다.

또한 이 목사는 1969년 9월13일 저녁부터 천안시 동면에 있는 동면교회에 전도사로 첫 사역을 시작으로 지금 40년이 지났다. 그동안 많은 일파민과 험한 풍상을 다 겪으며 압만 보고 달려왔다. 이렇게 긴긴 세월 달려오는 동안 저 자신을 돌아볼 기회도 없었는데 이번 세계 평화상 수상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자신을 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남웅 목사 내외

통대협 고 박준철 목사 6주기 추모예배

통일교 적결운동 헌신 다짐...‘한국기독교통일교대책협의회’를

창립한 고 박준철목사 6주기 추모예배

한국기독교통일교대책협의회(대표회장 최재우 목사, 이하 통대협)는 지난달 20일(화) 오전 11시에故 박준철 목사의 산소인 대치공원에서 진리와 생명교회(통일교 파해자 중심교회)주관으로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 박준철 목사 6주기 추모예배를 드렸다.

진리와 생명교회는故 박준철 목사가 생전에 교회를 설립 한 통일교 파해자 중심교회로서, 현재 고 박준철목사 부인이며, 통대협 사무총장인 이영선목사가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으며, 통일교를 탈퇴한 파해자들을 모아 예배를 드리고 교육시켜 통일교에서 벗어나 기독교 성도로 거듭나도록 개종시키고 있다.

또한 통일교대책협의회 일과 병행하여 통일교 탈퇴자들의 창입, 결혼, 돌잔치, 축하 및 입원환자심방, 수도권지역 가정심방, 신앙생활상담, 고충처리 및 전화상담 등 다양한 통일교 적결의 일을 하고 있다.

이날 추모예배는 통대협 사무총장 이영선 목사와 진리와생명교회 성도들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교 적결을 위해



싸우다 소천한 고인인 고 박준철 목사를 추모하며 통일교 적결운동에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故 박준철 목사는 31년간 통일교에 교역자로 몸담았으나 2001년 1월 9일 통일교 목사 28년째 파천 통일교 현지 목사로 시무중 통일교를 탈퇴하여 문선명 집단의 비리폭로 및 기자회견 후 전 가족이 통일교를 탈퇴하게 되었다.

2001년 1월9일부터 2004년 7월까지 방송, 기독교 언론사 50여곳 등에 통일교의 비 진리성 및 비리폭로에 관한 내용을 2000여회의 언론보도를 하여 합동결혼식이 100분의 1로 축소시켰다. (2000년 45만쌍, 2001년 3만 5천쌍, 2002년 3천 5백쌍, 2003년 7월 13일 3500쌍 박 목사의 폭로로 통일교 합동 결혼식이 100분의 1로 줄었음)

2003년 1월 23일 ‘한국기독교통일교대

대책의회’를 창립하였다. 박 목사는 문선명 집단과 2002년 1월 16일에 민사재판에서「빠앗킨 30년, 잃어버린 30년」(통일교 비리폭로 저서) 최초로 승소하였으며 형사재판은 2004년 7월 12일 19번째 최후 재판 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안타깝게 무효처리가 되었다.

故 박준철 목사는 통일교 제품 불매운동, 2003년 피스컵 축구대회 지지 운동, 문집단의 가정단 창당 저지운동, 용평스키장 반대운동, 여수 관광단지 저지운동, 순결교육, 순결캠프 저지운동 등을 주도하며 한국기독교통일교 대책협의회 사무총장과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전문위원, 한국교회 언론회 이단사이비 조사 연구위원(방송?언론)으로 활동했다. 은혜로운 가운데故 박준철 목사 6주기 추모예배를 드렸다.

후원현금 계좌번호: 국민은행 044202-04-078236 예금주: 이영선(통일교대책협의회)

이영선목사 간증초청 연락처전화: TEL] 02-744-2422/ HTP 018-214-7720

한기총, WEA 총회 준비위 조직보강 위임

서울 유치 확정으로 명칭도 ‘WEA총회준비조직위원회’로



한기총은 WEA(세계복음주의연맹) 2014년 총회의 서울 유치가 확정됨에 따라 조직을 보강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광선 목사)의WEA 총회유치 및 준비위원회’는 지난 달 30일 오전 7시에

CCMM빌딩에서 위임장 엄신형 목사의 주재로 가진 전체회의에서 WEA 총회 유치 과정을 정확히 정리하는 한편, 위원회의 명칭을WEA총회준비조직위원회’로 변경하고 교계가 다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을 확대 보강하기로 하고 위원 선정은 위임장에게 위임하기로 가결되었다.



칼럼

박영남 목사
건국대학교 문학, 문학, 문예이론대 주임교수
본지 실업이사, 시인, 문학 평론가

인생의 파도를 넘는 비결

몇 번이고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 생명은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스스로 자신을 경멸해도 좋을 만큼 보잘것없는 인간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남들의 우열 평가에 의해 내 존재 가치가 흔들릴 수도 없다.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설계로 주조된 것이고 세밀하게 창조된 최고의 값어치를 지니고 있다. 어떤 진화론자의 말처럼 생명은 우연히 탄생되지 않았다.

어느 가요처럼 우리 만남이 우연이 아닌 것처럼 우리 인생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어찌다 이렇게 태어나 살게 된 것이 아니다. 우연이니까 애초부터 인생의 의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속임수다. 프린스턴 대학의 생물학 교수인 에드윈 콘클린 교수가 말했다. “생명이 우연히 출현할 확률은 인쇄 공장이 폭발해서 사진이 나올 확률에 비교될 수 있다.” 실패했다고 자신을 무너뜨리며 생각하지 말라. 실패를 거듭하는 인생이라고 자신을 포기해 버려야겠다고 말하기도 말라.

돈 좀 더 벌지 못한 것을 인생의 실패라고 말하지도 말라. 실패가 값진 인생의 의미를 폭파시킬 만큼 강력하지 않다. 생명은 그 정도의 실패와 성공의 계단을 이미 훌쩍 뛰어넘은 탁월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실패는 아니 사실 모든 것은 우리 인생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일본 최고의 기술기업인 오토카노 공업사의 오토카노 마사유키 대표는 그의 저서 ‘복숨 걸고 일한다’에서 이렇게 외쳤다. “눈앞에 현금보다 중요한 것이 노후와 실력이다. 돈

때문에 실패에 굴복하면 결코 노후를 얻을 수 없다. 사람은 에게는 실패에서 배우는 근성이 있어야 하며 그 때문에 나는 실패를 선택으로 삼을 수 있었고 거듭된 실패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그렇다. 실패 때문에 자신을 비하하지 말라. 좀 더 많은 물질을 얻지 못했다고 자신을 비판적으로 평가하지 말라. 우리는 가시 우주의 1250억 개 이상의 은하수보다 더 소중한 존재이다. 실패했다면 그냥 실패에서 교훈을 배우라. 실패가 당신을 절망하게 만들지 말라. 디즈니 만화영화 ‘라이언 킹’의 어린 사자 심바에게 어느 날 아빠 무파사가 환상 중에 나타나 말한다. “심바야, 너는 나를 잊었구나.” “아니요, 아빠를 제가 어떻게 잊을 수 있었어요?” 무파사가 말한다. “넌 내가 누군지 잊어버렸구나. 그렇다면 날 잊은 거야. 네가 누군지 기억하렴. 너는 내 아들, 진정한 왕이란다.” 이 환상을 본 것은 심바가 아빠 무파사를

죽음으로 물고 갔다는 누명을 쓰고 죄책감과 두려움에 도망친 때였다.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가? 창조주 그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 정체성이 혼돈되면 인생의 파도를 넘을 수 없다. 잊지 말라. 우리 인생은 그분의 기하면서 도망칠 값싼 인생이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정교함으로 창조한 의미와 목적이 분명한 생명체이다. 당신의 생명을 사랑하라!

인생의 파도를 반드시 넘게 될 것이다.



현주 지매가 모델로 파도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

▶인물사진의 중요성 / 사진은 인물사진으로 시작하여 인물사진으로 끝난다는 말이 있다. 사진이 시작된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사진촬영의 대상은 인물사진이 지배적이며 사람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즐겨 찍은 소재이다. 그러면서도 가장 까다롭고 어렵게 느껴지는 사진이다. 훌륭한 인물사진은 단순히 인물의 물리적인 외형뿐만 아니라, 인물에 대한 개별적인 정보까지도 암시되어야 한다.

▶인물 촬영에 앞서 중요한 팁 / 촬영에 앞서 인물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결정하고 원하는 인물사진의 유형에 따라 광범한 스튜디오 배경이나 자연풍경 또는 특정한 장소를 선택하여 얼굴 표정 포즈 소품 조명 화면구성 등을 통해 인물의 캐릭터를 묘사할 수 있어야 한다. 촬영에 임할 경우 인물을 가장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카메라 앞에서 당혹스러워하면 실제 인물의 캐릭터가 제대로 묘사되지 않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도 좋은 인물사진을 촬영하는 비결이라 할 수 있다.

▶장비의 선택 / 1. 카메라 : 카메라와 렌즈의 선택에 있어서는 특정한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인물의 움직임이나, 감정 표현을 관찰하면서 촬영하기에 좋고, 표준 광각 망원렌즈의 시각적 느낌을 파인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SRL 카메라의 사용이 효과적이다. 2. 렌즈 : 인물의 포즈에 따라 렌즈의 사용 목적을 분리해 보면, 인물의 전신상의 표현은 35mm/ 50mm 웨스트샷의 표현은 85mm 바스트샷의 표현은 100mm 105mm 135mm 생활공간 속의 인물사진의 표현은 35mm 28mm 24mm 20mm 초점거리가 짧은 렌즈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카메라와 인물 사이의 촬영거리가 가까워지게 될 경우 초점거리가 짧은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 사람이 종종해 보이고, 얼굴 모양이 왜곡됨으로 망원계열의 렌즈를 사용하여 사람들을 보다 날씬하게 그리고, 자연스러운 얼굴 모양의 사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망원렌즈는 인물과의 촬영거리를 멀리 두어 촬영할 수 있다. 근접에서 촬영하는 것보다, 인물이 촬영에 대한 두려움이 적어져서 편안하게 촬영에 임하게 하는 이점이 있다. 또한 피사체 심도를 알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주제를 배경으로부터 분리시켜 돋보이게 할 수 있다.

▶촬영거리 촬영각도 프레임 /



강사 엄영수 목사(새벽 미술을 접시한 사진)

촬영위치에 따라 인물의 표현은 크게 달라지게 되며 이 세 가지 요인은 촬영 시 끊임없이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여러 각도에서 각기 다른 인물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다. 앵글의 변화에 따른 시각적 효과를 상고해 보면 로우 앵글의 촬영은 인물의 권위가 더욱 과장 되기 때문에 연세가 많은 분이나, 사회적 지위가 있거나 사업가의 인물사진 표현에 효과적이다. 인물이 작고 연약하게 나타나는 하이앵글은 어린이 인물사진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카메라 앵글을 여러 가지로 사용해본 후 시선을 사로잡는 이상적인 인물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중요과제일 것이다.

프레임 / *클로즈업 (Close-up) *바스트(Bust) 프레임 *웨스트(Waist) 프레임 *니(Knee) 프레임 *풀(Full) 프레임, 모든 경우에 특히 손의 포즈에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 손의 포즈와 위치는 인물의 개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인물의 반신을 촬영할 경우, 단조로운 표현을 벗어나기 위해, 손 악세사리 생활 도구 등 소품을 효과적으로 조화시켜 사용하는 것도, 인물의 표현에 비탄직한 방법 중 하나이다.

▶조명 / 인물 주변의 광선의 질과 방향, 그리고 주위 환경의 배경은 인물 사진의 표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순광보다는 사광을 이용하고, 입체적 묘사와 질감묘사를 위해서는 측광이 유리하며, 입체적 영상 묘사를 원할 때는 반 역광이 효과적이

다. 때로는 완전역광을 이용해 실루엣의 묘사가 돋보이는 경우도

있으며 남녀를 막론하고 얼굴을 가름하게 얼굴 윤곽은 부드럽게

『인물 사진의 실제』

▶구도 / 인물만 크게 촬영한다고 해서 인물이 강조되는 것은 아니다. 시각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포인트가 되는 곳에 인물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물 사진을 효과적으로 화면을 구성하는 방법에는 3분할법을 사용하여, 한 쪽으로 인물이 1/3선상에 치우치도록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인물의 시선방향이 좌우 어느 한 쪽을 향한 경우, 그 방향을 넓게 해 주는 것이 좋다.

▶인물의 가장 효과적인 시선은 / 외향적인 경우 카메라의 정면을 응시 전형적인 면을 강조할 수 있으며 내성적인 피사체는 프레임 밖으로 시선을 고정시켜 편안하고 캐주얼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전신촬영을 할 경우는 손, 팔꿈치, 다리, 발의 위치를 점검하여 최선의 포즈를 연출하도록 한다. 촬영이 진행되면서 인물과 촬영자 사이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면 다양한 포즈로 실험해 보는 것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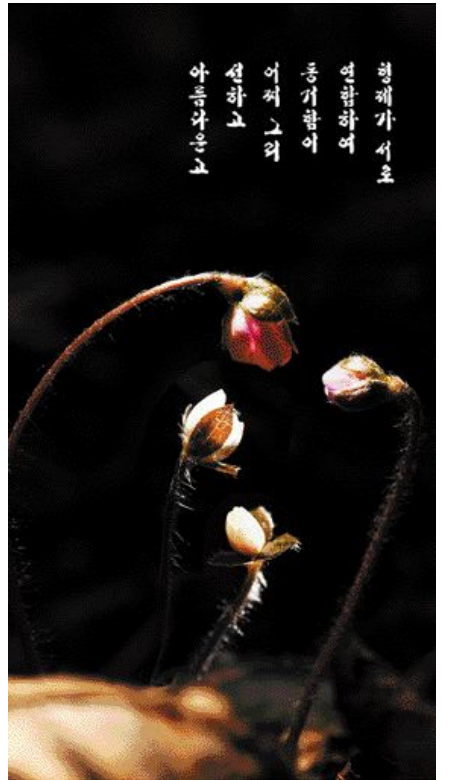
대한기독교선교사협의회
특집강좌 / 엄영수 목사

나타내는데 효과적이다. Rembrandt 조명 / 강하고 힘찬 대칭적 조명 방법으로 좁은 조명을 필요로 하는 로우키의 남성사진에 적합. 이중턱 네모진 턱 넓은 코 등의 크기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Split 조명 / 얼굴의 밝은 쪽과 그늘진 쪽으로 명암을 나누어 얼굴을 가름하게 나타내는 효과가 크며 입체감과 깊이도 가장 강하게 나타내는 조명이다. Broad 조명 / 광원이 카메라 쪽 쪽이 보이



강사 엄영수 목사(새벽 미술 접시 사진)



강사 엄영수 목사 작품

태국치앙라이 가나인훈련원 20주년 감사예배

가나인 출애굽 훈련원 역사

지난달 17일(토)오전10시30분 치앙라이 가나인훈련원에서 가나인 20주년을 기념하여 감사예배를 드렸다. 가나인훈련원 원장 김성희 선교사가 예배를 위해 사회를 진행하고 김용길 이사장의 기도와 실라 옛 목사(태국 전.EAT연합총회장)가 말씀을 전하고 축도로 마쳤다. 이날 한국에서 가나인농군학교 김법일 총재가 참석 세미나 강사로 나서 현지인들과 선교사들에게 많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가나인훈련원장 김성희 선교사의 가정은 1990년 5월29일 산책사역에 대한 비전

과 사명에 따라 태국에 입국하여, 언어훈련 과정과 첫 전문사역을 정리한 후 1997년 1월 5일 18명(남 8명, 여 10명)과 함께 메수웨이에 소재한 2층 건물을 임대하면서 처음 CANAAN CENTER를 설립했다. 김 선교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폐교된 북태지역을 중심으로 훈련원을 시작했으며, 치앙라이 후아린 초등학교를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면서 더 많은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훈련에 힘쓰면서 사역을 확대해 갔다.

2003년에는 기도해 왔던 체계적인 합숙과 훈련장의 예산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치앙라이 메스웨이에 논 면적 약 3.650평과 훈련

원 대지 면적 약 10,000평을 구입하고, 이를 통해 기독교 정신을 근간으로 근로, 봉사, 희생의 가나인 정신을 가르치며 훈련할 수 있는 훈련원을 세워가기 시작했다. 그 후 2003년 11월 23일 훈련원 헌당예배를 드리고 그 명칭을 “가나인 출애굽 훈련원”으로 하고 교회와 가족사의 건축을 진행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대함을 볼 수 있게 여러 모양으로 가나인 출애굽 훈련원을 축복해 주셨다. 2004년 방앗간과 창고 신축 2005년 식당과 패치 사육장 건축 2006년 1층 5개 숙소 개축, 2007년 1층 3개 게스트 룸 증축 2008년 ‘JOON’ 라디오 방송실 건축 2009년 2층으로



태국 치앙라이(가나인 출애굽 훈련원을 건축을 위하여 기공식 킷트(태피)를 하고 있다)

된 여자 화장실 증축 훈련원을 통해 약 500명이 장, 단기훈련을 받았고 2010년 현재, 섬기고 있는 산측 교회5개 장소를 비롯해서 가나인 출애굽 훈련원에 함께 생활하는 초, 중, 고등학생들이 현재 51명이 있으며, 그 동안 함께 훈련 받던

학생들이 헌신하여 (신학생 5명, 현지 사역자 8명) 가나인 출애굽 훈련원에서 선교사 47명과 함께 사역하고 있다. 가나인 훈련원의 비전 근로, 봉사, 희생의 가나인 개척 정신을 통해 모세와 여호수아, 에스더 같은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여 열방의 부족과 민족, 특히 태국과 태국인족을 구원하며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간다. “JOON” 라디오 방송국 개국 태국을 사랑하고 태국인을 사랑하여 선교사가 되고자 했던 “교” 김준기 선교사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김성희, 함옥자 선교사는 그의 이름을 따서 “JOON” 라디오 방송국을 설립하고 개국했다. 모든 재정은 김성희, 함옥자 선교사의 외아들 고 김준기 선교사의 학업을 위해 준비해 놓았던 학자금과 조의금으로 조성되었다. 작금 2007년10월 공사면적 3m/4m 높이 2m 구조 : 방 3개 예산 120,000บาท 방송장비: 300,000บาท, 전채 경비 : 420,000บาท 2008년 3월 9일 15:00(FM96.00MHz) 처음 방송전파를 송출하게 되었다.

“JOON” 라디오 방송의 목표
1.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과 사회에 전하기 위해, 2. 유익한 정보를 사회에 전하기 위해, 3. 올바른 국민 윤리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4. 많은 사람들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5. 여러 소수부족언어로 실시간마다 복음을 전파하고 본 방송은 정치 및 수익성 광고는 하지 않는다.
가나인 출애굽 훈련원 섬김이들
김성희, 함옥자 선교사, 함윤덕, 문현진 선교사, 정성희, 박미리 선교사, 최일민, 강경희 선교사, 한지나역자(가나인출애굽훈련원) 식 카린 전도사, 권익진 전도사, 루퍼라 전도사, 신복고화소개
도미며 고회(베리란 전도사) 위안파 교회(유나 전도사), 후웨이(문복교회) 아체 전도사, 후웨이(남아교회) 마르다 전도사, 후아이(선교회) 아닛트 전도사, 등이다.

태국 치앙라이 본지 전승주 기자(태국치앙라이)

지저스타임즈 JTN방송

2010 4차 이사회 열어

문서선교와 인터넷 전파선교 발전을 위하여 적극협력을 다짐

본지 JTN방송은 지난 22일 (목)오후 3시30분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온누리찬양교회(정대성 목사)에서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 제4차 정기 이사회를 갖고 문서선교를 통한 지저스타임즈 및 인터넷 JTN신문방송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기도와 협력을 다짐했다. 대표 이사 정기남 목사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 사장 소진우 목사(서울예복교회)가 기도를, 부이사장 정대성 목사(온누리찬양교회)는 약 6:12절 말씀을 인용 "시험의 끝"이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중부권지사장 박양우 목사(전 대전경찰청 교경협 사무총장)가 문서선교 후원을 위한 봉헌기도를, 고문 임철환 목사의 축사와 정 대표이사의 인사 및 광고가 있었으며, 고문 이원석 목사 축도로 마쳤다.

이날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는 한때 경찰청 강력계에서 오랜 기간 국가와 지역사회의 치안인 보를 위하여 봉사해 오다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 이영웅

목사를 소개하고 본지 상임이사로 사임했다.

이어 고문, 상임이사, 운영이사, 전국 지사장들과 2010년 제4차 회합을 갖고 정기남 대표이사는 본지 운영에 있어서 자세히 보고를 하고 인사를 했다. 정대표는 "날로 구독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전국 16개 지사장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12개 나라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 및 지사장들의 활동이 컸다면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둘째는 이사진 여러분 모두의 기도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지난 6월 말에는 태국 치앙마이 전승주 선교사, 방글라데시 박해근 선교사를 각각 지사장으로 사임하고 파송예배를 드렸으며, 구로경찰서 교경협의 회 사무총장 김수정 목사가 설교를 맡아 은혜를 끼친 바 있다며 보고했다.

한편 본지 이사회는 발행부수를 더 늘리고 증면할 것을 결의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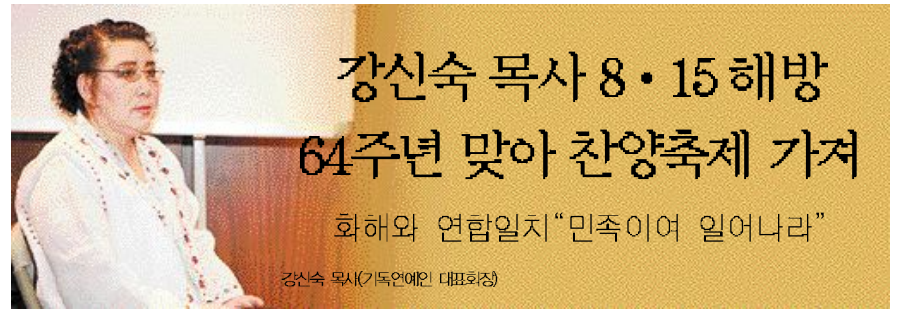
본지 제4차 이사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했다. (광주온누리찬양교회 본당)

회비를 상향조정 지원한다는 것과 각 교회 예배광고를 통해 재정을 충당해서 지원하는데 뜻을 같이했다. 또한 다음 2010 제5차 이사회는 강원도 춘천, 박영남 목사(강원지사)에서 갖게 된다.

한편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에 아름답게 우뚝선 온누리찬양교회 정대성 목사는 세계온누리부흥사협의회(이하-온부협)총재로 지난 달 취임 했다. 남다른 뜨거운 열정이 넘치고 있는 정목사는 이 시대에 합된 선교사와 목회자 양성을 위하여 1,500

평 되는 교회 교육관을 새롭게 단장시켜 교사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2010년 9월부터 신학교를 운영하고 후학도 양성을 위한 사역자의 본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대성 목사는 신학교 운영에 있어서 한국에서 인정받는 교수진들로 섭외가 다 되어져 있으며, 최고의 학교, 최고의 대우를 하는 선교회로 될 것이라고 말하고, 지저스타임즈와 JTN방송 문서선교를 위하여 적극 후원을 다짐했다.



강신숙 목사 8·15 해방 64주년 맞아 찬양축제 가져

화해와 연합일치 "민족이여 일어나라"

강신숙 목사(기독교연예인대표회장)

강신숙 목사(기독교연예인대표회장)는 8월 2일(월)오후1시부터 4시까지 양재동 햇불교회 온유홀에서 햇불목회자선교회(구국을 위한) 8.15해방 64주년 기념예배 및 찬양축제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햇불목회자선교회 주최로 "개척교회 목회자 돕기"를 위하여 이루어진 축제였다. 정재용 목사(방주교회)사회로 1부 예배가 진행되고 루디아 전도사(백소훈)특별연주와 김성수 목사(세계속문화교류예술단장)가기도를, 사회자는 성경 사 9:2-3절 봉독하고 김경목 목사(평택중앙교회)가 특송을, 강신숙 목사(기원목부협대표회장)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리라"는 말씀을 선포했다. 헌금헌양에 다윗성 목

사가(햇불목회자선교회)헌금기도를, 세계속에 문화교류 예술단의 찬양 율동으로 2부가 시작되어 강신숙 목사가 찬양을, 이순희 목사(전세계전도교회)의 율동과 루디아 전도사 찬양이 이어지면서 강신숙 목사, 윤지영 목사(온세상선교회)찬양과 율동을, 다윗성 목사(부천천교회)의 찬양, 합창화



강신숙 목사 찬양과 무용으로.

전도사의 율동이 있었다. 이어 김경목 목사(광송교회)의 찬양과 박미경 집사의 국악무용이 있었

며, 강 목사와 함께 "화해와 연합 일치 승.비상. 민족이여 일어나라" 등 합창을 끝으로 축제를 마쳤다.

기독교당 민승 대표 제1차 정기월례회 및 초청강좌 열려

기독교당 민승 대표는 제1차 정기월례예배를 드린 후 초청강좌가 8월 3일 오전11시에 기독교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민승 대표, 김길자 권사(경인여대 명예총장), 정용석 교수(단국대사회과학대학 명예교수) 비롯 250여명의 초청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개최된 기독교당 정기월례예배를 통해 당의이념 및 노선과 정책성을 대내외에 전명하고 그 존재를 과시하는 등 당 대표취임에 즈음한 당내 갈등으로 인한 분열상황 종식 등 당이 하나 되고 신뢰성 있는 이미지를 갖자는데 그 의의가 있다며 모임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김길환 목사(담목실장)의 사회를 맡는 가운데 정기월례예배가 시작되었다. 당 대표 민승 목사는 "십자가의 도"란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당 대표 민승 목사는 기독교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한다고 말하고 십자가의 도는 고난과 죽음을 이기는 부활과 승리의 길이라면서 이에 기독교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평등민주주의



기독교당 민승 대표와 함께 기념촬영.

의, 복지민주주의, 통합민주주의를 실현하여 모두 다 부활과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데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2부 강좌에서는 김형와 목사(당대표 특별보좌역)의 사회로 정용석 교수(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가 "한국의 걸 다르고 속 다른 이중 안보구조 위기"란 주제로 강의를 했다. 정교자는 한국의 현 안보 상태는 겉은 멀정하나 속내는 불안하기 짝이 없다. 즉 현 정부의 통치이념이 불안하고 친북좌익세력이 만연한 현

사회가 불안하다.

김정일의 핵개발과 선군정치, 종래의 일방적 대북지지가 한국의 안보를 불안케 하고 극도로 해이된 국민의 안보의식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에 따라 기독교의 시대적 통찰력과 미래지향적 정치이념을 가지고 애국세력을 총 결집하는데 있다면 이 시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는데 정당

예장 중앙총회 목사안수 취소공방

총회 "목사 안수서약에 따라 취소 한 것" 밝혀
목사 최소 동보 받은 목사들 "절차상 문제 있다" 주장

예장 중앙총회(총회장 백기환 목사)는 최근 총회 헌법과 규정 그리고 목사 안수 서약을 위반한 장모-김모 목사에게 대하여 목사 안수 취소를 단행 했으며 이일과 관련하여 현재 목사 안수 취소를 통보 받은 목회자와 중앙 총회간 공방이 일고 있다.

또한 목사 최소 통보를 받은 김모 - 장모 목사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목사 취소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혀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중앙총회 전권위는 최근 총회에 목사 안수 서약 위반을 근거로 김모 장모 목사 등의 안수를 취소 결정을 내린바 있다. 중앙총회는 "총회 법과 목사 안수 서약에 근거하여 원칙으로 결정한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다.

중앙 측 관계자는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은 이 서약을 중심으로 서약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된다"고 말하고 "이번처럼 목사안수를 취소하는 경우 안수 시 받은 서

약을 위반 한 경우라면 이번 사항은 이런 여러 가지가 해당되어 당사자들에게 목사 안수취소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총회는 특히 "교단을 이탈해 총회를 구성한 것은 분명하게 해 총회를 한 행위에 해당된다며 교단 전권위에서 결정한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총회는 "이번에 이탈한 사 람들에 대하여 교단이 더욱 문제로 삼는 것은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해 교단적으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라며 이들에 대하여 현재 법적인 검토에 들어간 상태로 분명한 책

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에는 장로 교단이 70%를 차지하고 있지만, 장로 교단으로 서약에서 목사 안수 취소 규정을 둔 교단은 중앙총회 뿐이다. 하지만 중앙총회에 안수 취소는 다른 장로교의 면직과 달리 목사직임만 취소 하는 것으로 추후 서약 위반에 대한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회복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장로교에서 면직을 당하여 수한 금지까지 당하는 것과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현재 목사 안수 취소를 당한 김모 장모 목사는 50여명의 목사와 함께 정회총회를 구성 했으며 중앙 총회를 개혁시켜 가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다. 장모 김모 목사는 "끝까지 법적인 책임을 물어 나가겠다"고 강조 했다.

이제 교회도 풀 칼라시대!

COLOR가 살아있는 칼라주보복합기
세계 최초 1m 20 출력
주보 2단 4면, 3단 6면,
4단 8면(복사, 출력) 가능

인쇄 + 복사 + 스캔 + 팩스 = 하나로

동급 최고의 인쇄 속도를 지원하는
컴팩트한 디자인의
주보용 컬러 레이저 복합기

₩1,595,000
↓
₩990,000

PC형 주보 인쇄기
우리교회 주보 인쇄용
우리가 만들어요

- 손쉬운 작동
- 신속한 인쇄
- 저렴한 비용
- 교회상도의 인쇄물
- 컬러 인쇄로 OK
- 용지선택의 Free
- 뛰어난 내구성
- 다양한 컬러인쇄

영광기업이 20여년을 보냈습니다.
-한번 판매한 제품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계최초 칼라 복사기 A3 20매

200만원대 출시기념!

복합기 가격으로 칼라기 쓴다!

100대 한정판매실시 6,800,000원 → 2,990,000원

*빌려서라도 이번 기회에 꼭 구입하세요.
(36개월 할부, 중고복사기 보상)

이제 교회도 FULL Color시대입니다!!
세계최초 최대 1m 20cm 출력!

Color 200 A3 20매에 자동 양면 칼라 / 흑백 출력 복사 & 프린트!

가성비 DOWN UP

유가차기 가격에 하나도
모든 복사 인쇄물을 단면대로 ok

교회의 모든 인쇄물을 단면대로 ok

주보 전도지 포스터 한글영문 소책자 교회요람 부활예배서 등
주요학교 유원회 초중고등부 홍보실 청원부 성지순례 교회사유실 등

정지기 중철기

중철제본&정지기

주보정지기

T-압착기

영광기업 칼라복합기로 사진, 그림, 글씨를 출력 해서 1장부터 다량까지 즉석에서 티셔츠, 무선, 모자, 가방, 티셔츠 등에 T-압착기로 찍어서 여름성경학교 교회 각종 행사에 필요한 모든제품을 직접 만들면 시간적 약은 물론 비용 면에서 말기 10~90%까지 절약되며 우리교회만의 독특한 상품이 완성됩니다.

인사 말씀

항상 애없는 사랑을 보주시는 교회와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려주며 좋은 제품, 공급을 통하여 교회에 애지한다는 사랑감 아래 교회의 앞장에서 최선을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목사님 가정과 교회에 하심은 축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앞으로 많은 지도와 추가가 있 으시길 바랍니다.

대표이사: 정형영 장로 올림 010-5779-0691

주식회사 영광기업 1588-0691
Glory Enterprise Co., Ltd. www.jubo114.com